

【국 어】

1. 밑줄 친 낱말의 차용 방식이 다른 것은?

- (가) 赫居世王 盖郷言也 或作㉠弗矩内王 言光明理世也
- 『삼국유사』 권 제1 중에서-
- (나)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 『삼국유사』 권 제2 「처용가」 중에서-

- ① ㉠ : 弗矩内 ② ㉡ : 入
③ ㉢ : 可 ④ ㉣ : 羅

정답 2번

향찰은 신라시대의 문자기록수단이다. 한자를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문장 전체를 표기했던 종합표기 수단이기도 하다. 이때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뜻(훈차)을, 형식형태소는 한자의 음(음차)을, 차용해서 표기했다. 이 문제는 밑줄 친 한자가 음차인지 훈차인지를 구별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② 夜(밤, 야) 밤 ㉡入(들, 입) 훈차 伊(저, 이) 드리(늦게) 遊(놀, 유)行(다닐, 행)如(같을, 여) ③㉢可(옳을, 가) 음차- 노니다가

<오답풀이>

①(가) 赫居世王 盖郷言也 或作㉠弗矩内 음차 王 言光明理世也
- 『삼국유사』 권 제1 중에서-

아이를 혁거세왕(赫居世王)이라고 이름하고(이 혁거세赫居世는 필경 향언郷言일 것이다. 혹은 불구내왕弗矩内王이라고도 하니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③은 정답풀이와 함께 있습니다.

④脚(다리, 각)烏(까마귀, 오)伊(저, 이)四(넋, 사)是(옳을, 시)良(어질, 량)㉣羅 (새그물, 라) 음차- 가르리 네히어라

2.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하였다.
나. 초성자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다. 중성자의 기본자는 조음 기관을 상형하여 창제하였다.
라. 중성자는 따로 창제하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하게 하였다.
마. ‘ㄱ’, ‘ㄷ’, ‘ㅂ’처럼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식을 합용병서라고 한다.

- ① 가, 다 ② 가, 나, 라
③ 나, 라 ④ 나, 다, 마

정답 4번

<오답풀이>

나. 훈민정음 초성자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다. 중성자는 천(天), 지(地), 인(人)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습을 본떠 제작하였다.
라. 오늘날 된소리와 같은 형태를 각자병서라 한다

3. 다음 중 음운 변동과 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체 : 부엌 [부억]
② 축약 : 붙여 [부쳐]
③ 탈락 : 담가도 [담가도]
④ 첨가 : 피어도 [피여도]

정답 2번

② 축약 : 붙여 [부쳐] ‘ㅌ’이 ‘ㅣ’(반모음)을 만나서 ‘ㅊ’으로 구개음화되었다.

<오답풀이>

① 교체 : 부엌 [부억]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ㄱ’이 ‘ㄱ’으로 교체되었다.

③ 탈락 : 담가도 [담가도] 기본형 ‘담그다’가 어미‘아’를 만나서 ‘ㄱ’이 탈락되었다.

④ 첨가 : 피어도 [피여도] 일반적으로 ㅣ모음 순행동화로 설명된 부분이다. 그런데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반모음 ㅣ가 첨가되므로 첨가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예) 피어 [피여도]에서 동화된 ‘ㅍ’은 [ㅣ(반모음) + ㅍ(단모음)]의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첨가’라고도 할 수 있다.

4. 다음 중 언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의 자의성 : 언어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② 언어의 역사성 : 언어는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나 형태가 변화하기도 한다.
③ 언어의 사회성 : 언어 내용과 형식이 일단 한 사회 속에서 약속으로 굳어지면 아무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④ 언어의 분절성 :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 혹은 단위 사이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정답 4번

<정답풀이>

언어의 분절성 : 언어는 연속적인 자연의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사용하는데 단어와 단어 사이가 끊어져 있다거나, 자음과 모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모두 언어가 분절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5. 다음은 한자 성어이다. () 안에 들어갈 한자가 모두 적절한 것은?

- 累卵之()
口()腹劍
鯨戰()死
南()一夢

- ① 稅, 蜜, 蝦, 稼
② 勢, 密, 瑕, 柯
③ 勢, 蜜, 蝦, 柯

④ 稅, 密, 瑕, 稼

정답 3번

<정답풀이>

累(여러, 누)卵(알, 란)之(갈, 지)勢(형세, 세)
층층이 쌓아올린 알의 형세, 몹시 위태로운 형세를 의미한다.

口蜜(꿀, 밀)腹(배, 복)劍(칼, 검)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나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으로 겉은 친절하나 마음속은 음흉함을 뜻한다.

鯨(고래, 경)戰(싸움, 전)蝦(새우, 하)死(죽을, 사)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의미

南(남녘, 남)柯(가지, 가)一(한, 일)夢(꿈, 몽)

- 남쪽가지에서의 꿈이란 뜻으로 덧없는 꿈이나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6.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은 것은?

- ① 맑다 [말따] ② 흙과 [흑파]
- ③ 넓다 [널따] ④ 밝다 [밥따]

정답 1번

① 겹받침 'ㄹㄱ'은 '자음'앞이나 '어말'에서 대표음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 맑다 [막따]

<오답풀이> ② 흙과 [흑파] : 어간 끝소리 대표음 [ㄱ]과 뒷말의 첫소리 [ㄱ]이 만나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③ 넓다 [널따] : 어간의 끝소리가 [ㄹ, ㄴ, ㄷ]로 발음 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ㄱ, ㄷ, ㅅ, ㅈ'을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④ 밝다 [밥따] : 어간 끝소리 대표음 [ㅂ]과 뒷말의 첫소리 [ㄱ]이 만나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7. 다음 중 문장의 의미가 가장 명확한 것은?

- ①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 ② 오늘도 나는 반장과 선생님을 찾아다녔다.
- ③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 ④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신문을 더 좋아한다.

정답 4번

<오답풀이>

- ①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 보고 싶다는 주체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의미가 불명확하다.
- ② 오늘도 나는 반장과 선생님을 찾아다녔다.
- 내가 찾아다닌 사람이 선생님인지 아니면 반장과 선생님인지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
- ③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 '수많은'이 수식하는 대상이 사람들인지, 노력인지 의미가 불명확하다.

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 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체면을 관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북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북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 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떠밀어 조각을 내었다.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중략>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우리 서클 아이들이 봉산 탈춤 발표회를 갖기로 했거든요. 학교 축제의 하나예요.”

“그런데?”

민 노인의 물음에는,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북장단을 맡아 주셨으면 하구요.”

“뭐라구? 그건 나와 번지수가 달라. 해 본 적도 없구.”

“한두 번만 맞춰 보시면 될 건데요.”

“연습까지 하고? 아서라. 더구나 니 애비가 알면 큰일난다.”

“염려 마세요. 저하고 비밀만 지키면 되잖아요. 애들한테도 다 말해 났구, 지도 교수의 허락도 받았다고요.”

“임마, 그건 너희들끼리 해도 되잖아. 나까지 끌어내지 않아도.”

“누가 그걸 모르나요. 자리를 더 좀 빗내 보자 이겁니다.”

“나는 무대나 안방에만 앉아 봤지, 넓은 마당에서는 북을 쳐 본 경험 없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말을 안 꺼냈다면 몰라도, 이제 와서 제 체면도 좀 봐 주셔야죠.”

“이 녀석들 보게. 애비는 애비대로 내 북 때문에 제 체면이 깎인다는 판에, 자식은 또 북으로 체면을 세워 달라니 무슨 조황속인지 어지럽다.”

“아버지와 저와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 말도 못 알아듣겠다.”

“설명하자면 길구요. 이번 일은 꼭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제판에는 모처럼 할아버지께서 신바람 내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얼씨구. 이 녀석 봐라.”

- ① 손자 '성규'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 ② '민 노인'의 아들은 '민 노인'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시한다.
- ③ '민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있다.
- ④ 손자 '성규'는 일이 끝난 후 받게 될 혜택을 제시하며 '민 노인'을 설득하고 있다.

정답 4번

<정답 풀이> 정답의 근거는 성규의 대사에 그대로 있다.

성규의 대사 : 저하고 비밀만 지키면 되잖아요. 애들한테도 다 말해 났구, 지도 교수의 허락도 받았다고요.” “임마, 그건 너희들끼리 해도 되잖아. 나까지 끌어내지 않아도.” “제판에는 모처럼 할아버지께서 신바람 내실 기회를 드리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요. 자리를 더 좀 빗내 보자 이겁니다.”

9. 다음 중 적절한 한자만 쓰인 것은?

- ① 이 무기는 辭呈 거리가 너무 짧다. 신무기 개발과 補給이 時急하다.

- ② 사건을 造作한 것이 경찰에 의해 發覺되었다. 이는 권력을 지나치게 濫用한 결과다.
- ③ 조선시대 의식주에 관한 資料가 필요하면 민속학 事典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라. 그리고 고적을 答辭해라.
- ④ 이번 事件에 대해 한국 정부는 有感의 뜻을 표했다. 이는 한국인의 소행으로 斷定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답 2번

- ② 造(지을, 조) 作(지을,작) / 發(필, 발) 覺(깨달을, 각) / 濫(넘칠, 램) 用(쓸, 용)

<오답해설>

- ① ‘辭(말씀, 사) 呈(드릴, 정)’을 ‘射(쏠, 사) 程(한도, 정)’으로 고침
- ③ 資(재물, 자) 料(헤아릴, 료) 事(일,사) 典(법, 전) ‘答(대답, 답) 辭(말씀, 사) 를 踏(밟을, 답) 查(조사할, 사)’로 고침
- ④ 事(일,사) 件(사건, 건) ‘有(있을, 유) 感(느낄, 감)를 遺(남을 감) 憾(섭섭할 감)으로 고침’ 斷(끊을, 단) 定(정할, 정)

10. 다음에서 외래어 표기가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 | |
|------------------|-------------|
| ㉠ zigzag 지그재그 | ㉡ vision 비전 |
| ㉢ leadership 리더쉽 | ㉣ yellow 옐로 |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오답해설

- ㉡ vision 비전 ㉣ leadership 리더쉽

11. 이 글을 쓸 때 세운 글의 계획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께!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 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2학년 박○○입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바람이 자취를 감추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봄기운을 느끼며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방송반 동아리 모임에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에 선생님과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 모임에서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 궁금했던 것을 여쭙 수 있어서 무척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모임에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싶은 일이나 진로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방송 작가나 방송 제작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직업으로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실은 대학 진학도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 여러 학교 일로 바쁘시겠지만 진로나 진학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환절기라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신 : 학기 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답장은 편하신 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계절 변화를 환기한 후 안부를 묻는다.
② 선생님께 편지의 용건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③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므로 정중하고 공손하게 표현한다.
④ 선생님께 지난 과거 일을 말씀드리며 실수한 일에 용서를 구한다.

정답 4번

<정답풀이>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글이다. 용서를 비는 글이 아니다.

1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영과 나는 소꿉친구다. 나는 수영을 언제부터나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고 있다. 수영은 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한다. 그래서 내일은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고백할 생각이다.

- ① 가멸다 ② 슬겁다
③ 몽따다 ④ 곱삭다

정답 3번

① 가멸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다.

② 슬겁다: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덥다.

③ 몽따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체하다.

④ 곱삭다 : 1.옷 따위가 오래 되어서 울이 삭고 질이 약해지다. 2. 젖갈 따위가 오래 되어서 풀 삭다.

1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쓰인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갔다.

- ①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②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하는 높임법이다.

- ③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높임법으로, 종결 어미에 의해 청자에 대한 높임이나 낮춤의 정도가 표현된다.
- ④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여 높임을 표현한다. ‘계시다’, ‘잡수시다’ 등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정답 2번

누나는(주어) 할머니를(목적어) 모시고(할머니를 높여서 표현) 시골에 갔다. - 객체 높임법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해설>

④ ‘모시다’는 ‘테리다’의 높임말이다.

※ [14~15]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존 더를 드더올세라
어긔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긔야 내 가는 더 ㉡점그를세라
어긔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나)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거를 ㉣드로라

14. 위 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현실의 삶에 토대를 두고 있는 작품으로서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 ④ (가)는 특정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화된 정서를 드러내고 (나)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정답 4번

대립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 정읍사이다. 여기에서 달(빛, 구원)과 존 더(위험)가 대립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가)는 행상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달(천지신명)에게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비는 노래이다
- (나)는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한글로 기록되어진,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
- (나)는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궁중속악가사로 편입되면서 한글로

기록되었다. ‘청산별곡’

15.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머리곰 : ‘멀리멀리’의 의미로서 시적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점그를세라 : ‘저물까 두렵다’의 의미로서 야간에 남편이 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시적 화자의 심리가 나타난다.
- ③ ㉢ 피리도 괴리도 업이 :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의 의미로서 고독한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드로라 : ‘듣는가’의 의미로서 비록 홀로 있지만 사랑하는 임과 함께 신비로운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4번

<정답풀이>

청산별곡의 화자는 세속적 삶에서 비애와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절망적 현실 속에서 삶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 장면이다.

16.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녀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녀뿐이다.
- ② 억울하면 법대로 해라. 그리고 궁금한 것은 스스로 책이나 컴퓨터로 찾아보아라.
- ③ 우리는 어릴 망정 어떤 고난도 참아 냈다. 지금까지 애쓴 만큼 강팀들도 이길 수 있다.
- ④ 철수는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나 사장님에게 혼나기는커녕 수고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

정답 3번

‘근망정’ ‘근시작형 어미’이므로 반드시 붙여 쓴다.

오답풀이

① 그녀가 떠난 지(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뜻하는 의존명사) 그녀뿐(‘체언 + 뿐’에서 ‘뿐’은 보조사로 사용된다)이다.

② 법대로(‘체언 + 대로’에서 ‘대로’는 보조사이다)

④ 는커녕(보조사)

17. 다음 중 문장의 구성이 다른 것은?

- ① 꽃이 피는 봄이 되었다.
- ② 재물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③ 누나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알렸다.
- ④ 운동을 매일 하는데도 건강이 안 좋다.

정답 4번

④ 운동을 매일 하는데(종속적 연결어미)도 건강이 안 좋다.

<오답풀이>

- ① 꽃이 피는(관형절) 봄이 되었다. - 안긴 문장
- ② 재물을 보기(명사절)를 돌같이 하라. - 안긴 문장
- ③ 누나가 시험에 합격했음(명사절)을 알렸다. - 안긴 문장

18. 다음 문장 중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것은?

- ① 어제 만났던 그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다.
- ② 군대에 가는 민수는 후배들에게 책을 주었다.
- ③ 배가 많이 고팠던 철수는 라면을 맛있게 먹었다.
- ④ 삶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정답 : 2번

서술어의 자릿수를 묻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서술어 앞에 있는 ‘체언 + 조사’의 개수를 세면 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사(한자리 서술어)를 하나하나 기억하기 보다는 두 자리 서술어(되다, 아니다. 닮다 등)와 복잡한 세자리 서술어(주다, 여기다, 간주하다 등)의 종류를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

② 군대에 가는 민수는(주어) 후배들에게(필수부사어) 책을(목적어) 주었다. - ‘주다’는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풀이>

- ① 어제 만났던 그는(주어) 이제 선생님이(보어) 아니다. - 두 자리 서술어
- ③ 배가 많이 고팠던 철수는(주어) 라면을(목적어) 맛있게 먹었다. - 두 자리 서술어
- ④ 삶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주어) 도서관에서(부사어) 책을(목적어) 읽는다. - 이때 ‘도서관에서(부사어)’는 필수 부사어가 아니므로 생략가능하다. 따라서 두 자리 서술어이다.

19. 다음은 한글맞춤법 제30항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사이시옷 표기가 된 합성어의 예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 ㉡

- | | | |
|---|-----|-----|
| | ㉠ | ㉡ |
| ① | 꺾병 | 꺾밥 |
| ② | 넛가 | 넛길 |
| ③ | 자릿세 | 전셋집 |
| ④ | 아랫집 | 아랫방 |

정답 4번

정답 해설
아래(순 우리말) + 집(순 우리말) = [아래집]
아래(순 우리말) + 방[房]한자어]= [아래방]

20. 다음 ㉠~㉣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識字憂患
 ㉡ 角者無齒
 ㉢ 螳螂拒轍
 ㉣ 得隴望蜀

- ① ㉠ 아는 것이 병이다.
- ② ㉡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
- ③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④ ㉣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

정답 4번

得隴望蜀(득룡망촉) : 농(隴)나라를 얻고 나니 촉(觸)나라를 갖고 싶다는 뜻으로, 인간(人間)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오답풀이>

識字憂患(식자우환) :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이 된다는 뜻
角者無齒(각자무치) : 뿔이 있는 놈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모든 복을 겸하지는 못함

螳螂拒轍(당랑거철) :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는 말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과 대적한다는 뜻

간략한 총평 (출제분석과 앞으로의 수험생 학습방향)

2016년 경찰 1차 시험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겠다. 어려운 어휘문제(향찰, 한자성어 등)와 비교적 평이했던 문법과 문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한자 어휘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1번 신라시대 표기수단을 묻는 문제와 9번 한자의 올바른 표기를 묻는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20번 사자성어 문제 역시 得隴望蜀(득룡망촉)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가 정답으로 설정되어 있어 쉽지 않았다.

둘째, 문법관련 문제는 예전과 달리 표준어나 외래어표기, 로마자 표기 등 어문규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며 표준발음법이나 사이시옷규정, 높임표현, 띄어쓰기, 흘문장과 겹문장, 등에서 대부분 출제가 이루어졌다. 문법문제는 3번 음운현상과 18번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를 제외하면 평이한 수준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이루어진다면 문법의 공부방향은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식 공부보다 기본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착실하게 문법능력을 쌓아야 하겠다.

셋째, 문학관련 문제는 현대소설과 고전시가로 나눌 수 있다. 고전 시가는 필수작품으로 분류되어 오던 ‘정읍사’와 ‘청산별곡’에서 출제되었으며 소설은 최일남의 ‘흐르는 북’에서 출제되었다.

소설보다는 고전시가에서 조금 어려웠다. 고전시가가 필수 작품이긴 했으나 정확한 해석여부를 묻는 문제여서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핵심작품(고전)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하며 현대시나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므로 분석능력 위주의 학습을 해야겠다. 그리고 주제찾기(주된 정서)와 표현방식 찾기는 항상 모든 문학작품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부단한 훈련을 통하여 익숙해져야 한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